

민족대표 용성스님 회상에서 독립운동 참여

대종사 東庵

(4) 용성스님과의 인연

근현대 격동의 세월을 거치며 수행자의 길을 걸은 동암당(東庵堂) 성수(性洙, 1904~1969) 대종사는 신교육을 받고 출가해 교학연찬과 참선수행을 하며 정진했다. 1950~60년대 불교정화운동에 참여해 왜색불교를 청산하고 청정수행 가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헌신했다. 아쉽게도 행장이나 업적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초격스님)와 불교신문(사장 현범스님)은 '대종사 동암'을 공동 연재하여 스님의 자취를 기록하고 가르침을 선양하기로 했다. 동암 대종사 손상자인 도일스님(봉선사 부주지, 양주 오봉산 석굴암 주지)도 뜻을 같이했다.

교종본찰 봉선사에서 월초거연(月初巨淵) 스님의 상좌인 인담회진(印潭會眞)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동암스님은 이듬해인 1922년 서울 종로구 봉의동에 있는 대각사로 수행처를 옮긴다. 당시 대각사에는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으로 참여한 용성(龍城, 1864~1940)스님이 주석하고 있었다. 고종 황제의 붕어(崩御)에 즈음해 조선인 전체가 꺾기한 3·1운동을 주도해 일경에 체포된 용성스님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2년 2개월의 옥고를 치루고 석방됐다. 순정효황후(純貞孝皇后, 1894~1966)와 상궁(尙宮) 등의 후원으로 1921년 3월 대각사를 다시 개원한 후에도 일제에 항거하는 뜻을 접지 않아 요시찰 인물로 감시를 받고 있었다.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다른 사찰을 두고 대각사를 찾아간 동암스님은 용성스님 회상에서 정진하며 법상좌(法上座)가 된다. 동암(東庵)이란 법호(法號)도 용성스님에게 받은 것이다. 출가 전에 독립운동에 가담하여 검거를 피해 묘향산 보현사에 은신한 이력이 있고, 입산 도량인 봉선사 또한 1919년 3월 마을주민들과 만세운동을 전개한 사실을 감안하면 동암스님이 용성스님을 찾아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누구보다 뚜렷한 민족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인 용성스님 문하(門下)에 들어간 것이다. 조계종 종정을 세 차례 역임한 고암(古庵, 1899~1988) 스님은 생전에 “용성스님은 여섯 명의 제자를 인가를 했는데, 그 가운데 으뜸이 바로 동암스님”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암스님 역시 용성스님의 제자로 동암스님과는 사형사제(師兄師弟)로 각별한 사이였다. 1922년 서울 대각사에서 용성스님을

만난 후 동암스님은 고성 건봉사에 가서 불교전문강원 대교과를 졸업한다. 불교의 진리를 알기 위해 교학을 연찬하는데 힘을 쏟았다. 그 후에는 금강산 장안사에서 율사(律師)인 진허(震虛) 스님에게 비구계를 수지하여 출가 사문의 위의(威儀)를 갖추었다. 동암스님이 경전을 공부한 건봉사는 법흥왕 7년(520) 아도화상(阿道和尚)이 창건했는데, 일제강점기에는 31본산에 해당하는 대찰이었다. 양원왕 7년(551) 고구려 해량(惠亮)스님이 신라에 귀화하면서 창건했다는 설도 전한다. 민족의 명산인 금강산 초입에 자리한 건봉사는 구한말에 스님들이 의병 활동을 도운 구국애민(救國愛民) 사찰이기도 하다. 1896년 8월18일자 독립신문에는 “건봉사 스님 창기가 여주의 의병장 민용호의 비밀 편지를 가지고 운현궁으로 오다 체포돼 한성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면서 “원산항에 있던 일본인과 각처의 일본 병사들을 쫓아내자는 편지였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항일의 정신이 깃든 도량에서 강학(講學)에 집중한 것 역시 민족의식이 투철했던 스님의 면모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동암스님은 금강산 사찰에서 수년간 정진하는 와중에도 용성스님을 시봉하며 독립운동에 힘을 보탤다. 일경의 요시찰 대상이 되어 활동 반경이 좁을 수밖에 없는 용성스님을 돕는 일을 주로 했다. 밀명(密命)을 받아 독립자금을 배송하는 일을 맡았는데, 국내는 물론 만주와 상해까지 건너서 임시정부 요원을 만나 용성스님의 뜻과 자금을 전달했다. 동암스님의 상좌인 초안(超安) 스님은 생전에 “은사스님께서 용성 큰스님의 독립운동에 깊이 감동을 받아, 국내외를 다니며 독립자금을 전달했다는 말씀을 들었다”면서 “일경의 눈을 피하기 위해 속복(俗服)을 입고 다니기도 하셨다”고 회고한 바 있다.



동암스님의 법사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으로 참여한 용성스님.

상해 임시정부 독립자금 전달 건봉사 불교강원서 교학 연찬 1934년 봉선사에서 대덕 품수

해방직후 백범 귀국 봉영회장 대각사에서 성대한 환영 행사 출가자인 동시에 독립운동가

이어지는 초안스님의 생전 육성 증언이다. “은사스님께서 일본 경찰의 검문을 받아 몸수색을 당한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 때마다 기지(奇智)를 발휘해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사명감이 투철하셨기에 용성 큰스님 회상에서 그 같은 일을 하시는데 주저함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동암스님이 독립자금 전달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은 까닭은 출가 이전에 독립운동에 가담할 만큼 민족의식이 확실히 입이 무거워 설령 체포가 되더라도 기밀을 발설하지 않는 심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건장한 체격에 유도(柔道) 유단자일 정도로 운동을 잘했기에 체포 상황에 처하면 기민한 대응이 가능했던 것도 이유이다.

용성스님은 일제 감시를 피해 만주 연길에 화과원(華果院)을 만들어 독립운



동암스님

1945년 12월12일 서울 대각사에서 열린 임시정부 환영행사 후 기념사진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조소양, 이시영, 김구, 회암스님, 동암스님이 보인다. 사진 하단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봉영회 기념. 1945.12.12'라고 적혀 있다.

동 근거지를 삼았다. 외형적으로는 과수원이지만 선농일치(禪農一致)를 실현하는 수행처이기도 했다. 이 때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석방된 이듬해인 1922년으로 독립운동가 및 그 가족을 지원하는 동시에 독립자금 조성에 힘을 쏟고 있었다. 용성스님은 1927년 중국 용정에 대각사 포교원에 해당하는 대각교당(大覺教堂)을 설립해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삼았다. 건봉사 불교전문강원을 졸업한 후에는 용성스님의 뜻을 받들어 화과원을 왕래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암스님은 생전에 “1925년부터 10년 가까이 중국 상해와 북간도, 일본 등을 오가며 용성 큰스님의 뜻과 자금을 독립운동가들에게 전달했다”고 상좌 초안스님에게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생활을 마치고 출가본사인 봉선사로 돌아온 동암스님은 1934년 대덕(大德) 법계를 품수 받았으며, 1945년 해방 무렵까지 강화 보문사 주지 소임을

보았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후 김구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할 때 용성스님 문도들은 봉영회(奉迎會)를 결성해 맞이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봉영회의 회장을 동암스님이 맡을 만큼 문도들의 신임이 컸다. 백범 김구 등 임시정부 요인이 귀국한지 20일 쯤인 1945년 12월 12일 봉영회 주최로 성대한 환영행사가 서울 대각사에서 열렸다. 백범을 비롯해 이범석, 조소양, 유림, 김창숙 등 요인들이 대거 참석해 용성스님의 독립운동 참여 사실을 상징적으로 증명했다. 백범 김구는 “용성스님이 쌀가마니에 돈을 넣어 만주로 보내줘 긴요하게 사용하는 등 큰 도움을 받았다”면서 “비록 해방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영단에 향이라도 올리기 위해 찾아왔다”고 방문 이유를 밝혔다. 일제강점기 용성스님이 상해임시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

했음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그 과정에서 밀사(密使) 역할을 담당한 대표적 인물이 동암스님이었던 것이다. 대각사 방문 일주일 뒤에는 백범과 임시정부 요인들을 환영하는 ‘한국봉영회’가 서울운동장(지금의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대대적으로 열렸다. 전 범어사 주지 흥교스님은 “백범 선생이 대각사를 방문했을 때 건물 한쪽이 무너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봉선사에서 인담(印潭)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동암스님은 20대 중후반 청년기에 독립운동의 상징인 용성스님의 대의를 전하는데 전념했다. 건봉사 강원을 졸업하고 비구계를 수지하면서 출가사문의 위의를 갖추는 한편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데 누구보다 헌신한 동암스님의 삶을 보다 세밀하게 조명하는 과제는 후학들의 몫이다. 봉선사=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